



2024

전문대학 교양교육 권고안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CONTENTS

I. 교양교육의 정체성과 목표

1. 교양교육의 정의	1
2. 교양교육의 목표	1

II. 교양 교육과정의 구성

1. 자유학예	3
2. 기초·소양	4

III. 교양 교과목의 기본요건

1. 적극적 기준	5
2. 소극적 기준	7



전문대학 교양교육 권고안¹⁾

I. 교양교육의 정체성과 목표

1. 교양교육의 정의

“교양교육이란 대학 교육과 평생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지식의 습득 및 자율적 학문 탐구 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 예술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편적·통합적 자유교육이다. 또한 교양교육은 초연결·초지능 사회, 다양한 위기의 지속이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객관적 사실 인식을 토대로 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주의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2. 교양교육의 목표

목표

1.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
2.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양
3.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4. 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5.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6.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1)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1)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과 세계의 존재와 사건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2) 특정한 이해관계를 떠난 가치판단을 통해 (3) 인간이 보편적으로 희망하는 바람직한 세계의 실현을 위해 결정·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의 확립을 의미한다. 이 교육적 과제의 수행에 최선의 자양을 제공할 지적 자산은 기초학문의 탐구 성과에 있다.

1)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일반대학에 대해서는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을 2016년 처음 발표하였고 이를 기초로 교양교육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컨설팅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과 개별 대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22년 말에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일반대학과 교양교육을 위한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전반기에 전문대학 교수진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1년에 기꺼운 논의를 통해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표와 전문대학의 현실을 모두 고려하면서 ‘교양교육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이 권고안은 전문대학 교양교육 표준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잠정적인 안이며 이후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예정이다.

2)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양: 대학의 근본 목적인 학문 탐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간·사회·자연에 관한 지식과 이들을 전하는 문헌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보편적 문해 능력이다. 문헌뿐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삶의 현실, 자연과 기술문명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문헌의 이해를 위해서는 국어와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삶의 현실과 자연 및 기술문명의 이해를 위해서는 정보문해 교육과 수리·통계적 해석 교육 및 과학교육이 필요하다.

3)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은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능력이며 나아가 정보사회에서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식과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학술 활동, 직업 활동, 사회 활동을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가리킨다.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은 기본적인 문해 능력(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을 바탕으로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말과 글, 그리고 시청각적 의사소통 수단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4) 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융합적 사고 능력이란 개별 학문의 전문지식을 취합, 습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균형 있게 습득하고 그 연관성에 대한 '통찰적 발견'을 통해서 기존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때 '통찰적 발견'이란 다양한 분야의 이질적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의 사건, 사물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시각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융합적 사고는 이질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교수·학습하는 과정에서 길러질 수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복잡화, 중증화되고 있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진단하고 지식융합을 통해 대안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지식 활용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융합적 사고 능력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

5)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난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 존재의 토대인 공동체를 존속·발전시키기 위해 소속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자유학예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를 분석적·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적·정의적 능력을 길러준다. 이 교육은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배려와 협동, 인권과 평화, 정의와 공정 등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역량을 함양한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은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수용하는 데로 나아가게 한다.

6)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첨단 과학기술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일수록 합리적 사고 능력 못지않게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주변 세계와 감각적·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사유와 감각의 호환 및 융합이 가능해진 디지털 기술의 성과를 고려해 볼 때, 감각 내용의 논리화 및 사유 내용의 감각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감성을 움직이고 심미적 체험을 일깨우는 예술의 이해와 감상은 자유학예교육의 지적 측면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I. 교양 교육과정의 구성

전문대학 교양 교육과정은 자유학예교육, 기초·소양교육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이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은 원칙적으로 학점 부여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교양 교육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총 학점은 졸업 학점의 15% 이상²⁾**이 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1. 자유학예

자유학예교육(liberal arts & science education)은 교양 교육과정의 본령이다. 자유학예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두루 습득함으로써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지반과 여건,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계에 관한 종괄적인 지적 조망을 갖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자연을 토대로 하는 삶의 세계 전체에 관한 안목(세계관),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본성과 조건, 위상과 존재 의의에 대한 안목(인간관), 그리고 인간의 삶이 지향하는 이상·의미·가치에 대한 안목(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일이 자유학예교육의 과제이다. 중요한 점은 인간, 사회, 자연 모두가 세계관, 인간관 및 가치관의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자유학예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성찰능력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인 인성교육의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다.

부록 1 교양교육에서의 인성교육

자유학예 교육과정은 특정 학문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인문학, 예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중 한 분야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인문학, 예술학 내에서도 문학, 예술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사회과학 내에서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학, 심리학, 그리고 자연과학 내에서도 수리과학, 물질과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자유학예 학점은 졸업이수 교양학점의 50% 정도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 1〉 자유학예 교육과정

분류	학문영역
인문학, 예술학	문학, 예술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사회과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학, 심리학
자연과학	수리과학, 물질과학(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통합과학

2) 2년제는 12~16학점, 3년제는 16~20학점 정도 개설하는 것을 권장한다.

2. 기초·소양

기초·소양은 기초문해와 체험소양 영역을 포함한 개념을 의미한다.

기초문해교육은 대학 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고 능력과 문해 능력 등 기초학업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탐구의 대상을 분석·이해하고 그로부터 문제를 찾아내며,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적 시도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다양한 언어적 매체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유 주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이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지적·언어적 훈련이 포함된다. 기초문해교육의 대상으로는 문헌만이 아니라 구어를 통한 전달, 특히 각종 소통 매체(미디어) 및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광범하게 유통되는 정보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기초문해교육에는 사고교육 및 언어교육 외에도 디지털 자료·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정보문해 교육이 포함된다. 따라서 응용학문에 속하는 특정 전공들의 기초과목은 포함될 수 없다.

체험소양교육은 학문 탐구의 궁극 목적으로 되고, 그 전제로 되는, 포괄적 의미의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기초교양교육은 인식과 행동에서 보편타당한 ‘일반’ 원리를 모색하고, 그것을 자-정-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하는 전인적 능력의 함양을 지향한다. 이때 자유학예교육이 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성찰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면, 체험소양교육은 미적 감수성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자질과 공동체의 삶을 가능케 하는 인애(仁愛), 정의, 배려, 정직 등의 도덕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체험소양교육은 정서적·사회적·신체적 체험 교육을 통해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학업 계획 수립과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세미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교양’은 원래 지적 능력뿐 아니라 정서적 감응 능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한다. 정서적 감응은 먼저 감성적 공감 능력을 전제하고 나아가 미적 지각 및 구성 능력을 요구한다. 이를 배양하는 것이 ‘정서적 체험’ 교육이다. 도덕규범 및 당위의 실천 능력 또한 교양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천 없는 가치 인식이나 당위 인지는 의미가 없다. 실천 능력은 실천을 통해서만 힘양되므로 광의의 ‘사회적 체험’ 교육이 필요하다. 행동의 실천에는 의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의지를 강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심신을 단련하는 ‘신체적 체험’ 교육이다.

체험소양교육 영역은 지적 영역의 교육과 달리 교육 내용과 과정이 매우 다양하고 경우마다 고유하여 정규 수업만으로 감당해 내기 어려우며, 정량적인 객관적 평가도 어렵다. 따라서 체험소양교육은 가급적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정규 교육과정에는 최소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기초·소양 교육과정

분류	세부 내용
기초문해	글쓰기 ³⁾ , 의사소통, 정보문해
체험소양*	정서적·사회적·신체적 체험 등

* 교시과목도 편의상 체험소양에 포함

3) 글쓰기도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다른 의사소통 방식에 비해 대학의 학업 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며, 현재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이라 판단되어 이 권고안에서는 이를 독립시켜 표기하였다.

부록 2 기초문해교육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

부록 3 교양교육 영역별 주요 목표

부록 4 교양 교과목 예시

III. 교양 교과목의 기본요건

1. 적극적 기준

교양 교과목은 보편적 포괄성, 학술적 대표성, 전인교육의 요건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 1) 교양 교과목은 특수하지 않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 포괄성을 가져야 한다. 즉, 교양교육은 특정 전공분야 교육이나 직업교육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학문 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넓은 범위의 지적 시각을 포괄적으로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
- 2) 교양 교과목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전 영역에서 공인된 학술적 가치를 갖는 과목이어야 하며, 학생이 학문 간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동시대의 삶의 방식으로 수용토록 해야 한다.
- 3) 교양 교과목은 그 학술적 수준이 대학 교육 전반에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체험 교육의 중심이 되는 인성 함양 교과목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피할 수 있도록 지식의 습득과 인격의 연마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자유학예

- 자유학예 교과목은 인문-사회-자연의 기초학문 분야의 탐구 성과를 내용으로 한다. 각 교과목은 해당 영역에서 핵심적이면서도 보편성을 갖는 학술적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 교과목이 갖추어야 할 학술성은 다음과 같다.
 - **핵심적 주제:** 자유학예 교과목은 해당 학문영역의 본질적인 주요 주제를 다룬다.
 - **넓은 시각:** 자유학예 교과목은 해당 학문영역을 폭넓게 조감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한다.
 - **다양한 관점:** 자유학예 교과목은 해당 주제에 대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는 여러 관점을 제시한다.
 - **유기적 통일성:** 자유학예 교과목의 수업 내용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체계를 구성한다.
 - **통합적 개방성:** 자유학예 교과목은 해당 영역 또는 주제와 관련된 인접 학문, 시대적 배경 등을 포괄하고 그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방적 성격을 갖는다.
 - **시의성:** 자유학예 교과목은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성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나. 기초·소양

1) **기초문해:** 대학 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초학업 능력인 문해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글쓰기 교육, 의사소통교육은 물론이고 디지털 자료·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정보문해교육을 포함한다.

2) **체험소양:** 체험소양 교과목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학습과 정서적·사회적·신체적 체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정서적·도덕적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 **정서적 체험:** 예술의 감상 및 실기는 학생 스스로 새로운 체험을 통해 정서적 순화 및 창의적 발상의 계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교과목 특성에 부합하는 전용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 체험:** 이론적 윤리교육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현실적·심리적 고통을 공감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봉사활동, 윤리적, 도덕적, 규범적 교육, 예의범절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 **신체적 체험:** 대학의 체육 과목은 단순한 체력 및 건강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 신체적 단련을 통해 정신적 극기의 체험을 하게 하거나 타인과의 협동 능력을 기르거나 자기 성찰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 예술실기

- 예술의 감상 및 실기는 학생 스스로 심미적 체험을 통해 정서적 순화 및 창의적 발상의 계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교과목 특성에 부합하는 실기 전용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봉사

- 봉사활동은 이론적 윤리교육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현실적·심리적 고통을 공감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체육과목

- 대학의 체육과목은 단순한 건강 증진이나 여가를 위한 활동을 넘어서, 신체적 단련을 통해 정신적 극기의 체험을 하거나 타인과의 협동 능력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

• 대학생활적응과목

- 전공 교육이나 경력개발을 위한 준비과정에 한정되지 않고 학문 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지식습득과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신입생 세미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교시과목

- 교육내용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야 하며, 보편적 포괄성을 가져야 한다.⁴⁾

- 궁극적으로 체험소양교육의 목표인 인성 함양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교시 과목의 경우, 예를 들어 채플과 같이 참여와 체험이 중요한 활동은 비교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론적 내용이 주가 되는 교과목은 학술성을 높여서 자유학제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소극적 기준

적극적 기준이 교양 교과목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소극적 기준은 교양 교과목이 될 수 없는 부정적 제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 자유학예

– 자유학예 교과영역에서 비학술적 내용, 더 나아가 기초학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영역을 막론하고 학술성이 빈약한 교과목
 -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 대학 밖에서 개설되는 학술성이 빈약한 교과목– 예: 생활법률, 식생활, 건강, 부동산 등에 관한 교과목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이외의 교과목
 - 예: 경영학, 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회계학, 신문방송학 등 응용사회과학과 의약학, 각종 공학 관련 교과목(다만 기초학문 교과목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는 시민교육 차원에서 일부 추가 개설을 고려할 수도 있다.)
-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필요하나 교양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교과목
 - 직접적인 취·창업지도 교과목
- 대학에서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 학습법, 정보자료 이용법 등
-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개설이 요청되는 교과목
 - 그 내용이 교양과목으로서 적합성을 갖춘다면 개설 가능하다.

- 대학과 학생 입장에서는 필요하나 교양 교과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목은 교양 이수학점이 부여되지 않도록 일반선택 영역에 개설하거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기초·소양

1) 기초문해

- 글쓰기교육의 경우, 글쓰기 역량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강의만 하거나 다양한 글쓰기를 체험하는 수준에 그치는 과목은 피하도록 한다.
- 외국어교육의 경우, 단순히 (토익 등의) 시험 대비용 과목, 대학 외부의 학원 같은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의 과목은 피하도록 한다.
- 정보문해교육의 경우, 코딩 등 단순히 기능적 수단만을 습득하게 하는 과목은 피하도록 한다.

2) 체험소양

- 단순 체험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술성이 빈약한 교과목은 체험소양 교과목이 될 수 없다.
- 체험소양교육은 가급적이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정규 교육과정에는 최소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술실기

- 예술실기의 경우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것, 대학 외부의 학원 같은 곳에서 시행될만한 내용 (예: 악기연주, 미술 스케치, 동영상 제작, 사진 소프트웨어 단순 사용법 등)은 배제하도록 한다.

- 사회봉사

- 봉사활동 참여만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학점 부여의 대안으로 대학별로 운영 중인 학생 대상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 체육과목

- 체육 실기의 경우 교내에서 감당할 수 없어 외부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종목(골프, 승마 등), 혹은 방학 중 짧은 기간에 시행되는 종목(스키 등)은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 대학생활적응과목

- 학습법, 정보자료 이용법, 학교 시설 이용법 등과 같이 대학 생활에 필요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한다.

- 교시과목

- 대학 입장에서는 필요하거나 중요하지만, 교양 교과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목은 교양 이수학점이 부여되지 않도록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